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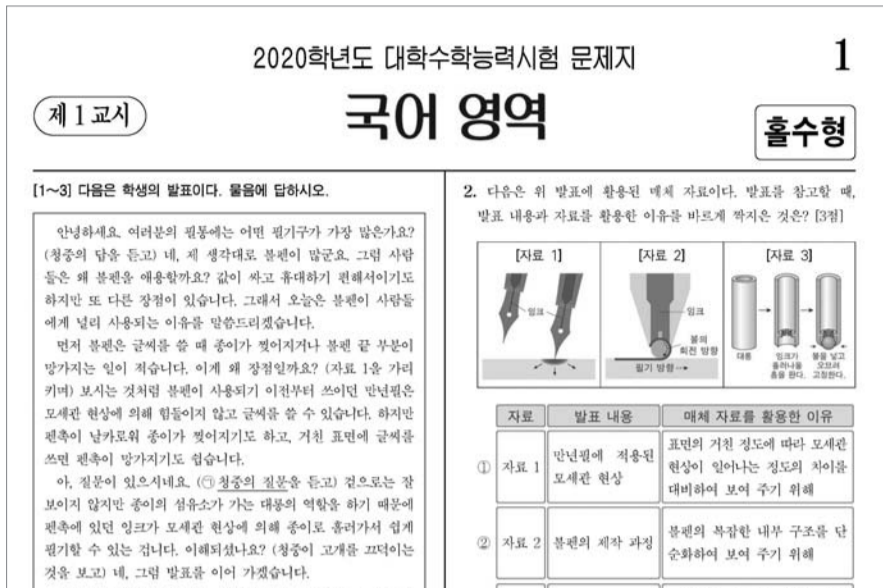
국어, 지난해보다 쉬웠다... 수학은 9월 모평과 비슷

올해 수능 난이도는

올해 수능 주요과목인 국어는 지난해 보다 쉽게, 수학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1교시 국어 영역에 지원했다가 실제로는 응시하지 않은 결시율이 10.14%로 나타나는 등 올해 처음으로 수능 응시자 수가 40만명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학생 지원자가 대폭 줄어든 반면 졸업생 비율은 늘었다. 이런 변화가 표준점수나 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어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난이도는 지난해 ‘초고난도 문항’으로 난이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견줘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전년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역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점자 비율도 0.03%(148명)에 불과했다. 고난도 문항은 22번과 40번으로 이 문항들을 얼마나 잘 풀었느냐에 따라 최상위권 성적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추천한 현장교사들은 이날 국어 영역이 끝난 뒤 “이번 수능 국어는 전년도 수능과 9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난도 문항으로는 문학영역에서 고전시가인 ‘월선현십육경가’와 ‘어촌기’를 지문으로 삼은 22번과 독서 영역에서 바젤 기준과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개념을 지문으로 삼은 40번이 꼽혔다. 김용진 동국대사법대부속여고 교사는 “EBS 교재에 연계된 작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영역 문제지.

전년비 쉬웠지만 변별력 갖춰 지난해 국어 31번 악몽 없을 것 독서 지문 해석은 어려웠을 듯

수학,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 고난이도 문항 20·21·29·30번

품이지만, 고전시가이고 EBS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 지문에 일부 포함돼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40번 문항에 대해 김 교사는 “해당 문항과 연계된 지문은 EBS 연계 지문이 아닌데다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제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며 “또 BIS 비율 용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어 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입시업체도 대체로 교사들과 비슷한

평가를 내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수능은 전년도나 올해 6·9월 모의평가보다 상당히 쉽게 출제됐다”며 “선택지와 지문이 다소 짧게 구성돼 체감 난도가 낮았을 것”이라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매우 어려웠던 전년도 수능에 비해 쉬웠지만 변별력은 확보한 시험”이라며 “경제분야를 다룬 독서영역 등은 여전히 어렵게 출제돼 다소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 지문이 전년도에 비해 쉬워졌기 때문에 인문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다소 유리할 수 있다”며 “전년도 1등급 컷인 84점, 2등급 컷인 78점에 비해 등급컷은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난해보다는 쉬웠지만 무작정 쉽지는 않은 변별력은 있는 시험”이라며 “올해 9월 모의평가 정도의 난이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고난도 문항은 없지만 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IS

문길이가 줄어도 여전히 독서 지문을 읽을 정보량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1등급 컷은 90점 전후에도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수능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1교시 국어 영역 출제 방향과 관련해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모든 학생이 유효리를 느끼지 않을만한 소재나 제재를 찾아서 내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수능에서는 배경지식 유무에 따라 (문제 풀이)에 유효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학 “작년 수능·올해 모평과 비슷한 수준”

수능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20번, 21번, 29번, 30번이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수능 2교시 이후 대교협 현장 교사들은 대체로 작년 수능과 9월 모평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현장 교사들은 “수학 나형 중 매년 가장 어려운 30번 문항이 작년보다 쉬웠다”고 평가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은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내용 전체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은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내용 전체에서 각각 출제됐다. 공통문항으로는 모집단과 표본의 뜻을 알고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이항분포의 뜻을 알고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해하고 그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을 출제했다.

수능 출제본부는 수학 영역 출제 방향에 대해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기초하여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수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수능이다.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수학 가형에서 기하가 빠지고 수학 나형에 삼각함수가 포함되는 등 출제범위가 달라진 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4년제 정시 7.9만명 선발... 영역별 반영비율 따라 소신지원

전체 모집인원의 22.7% 전년도 보다 3882명 줄어 대다수 수능 100% 선발

2020학년도 4년제 대학 정시 총 모집인원은 7만9090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2.7%를 차지한다. 전년도(8만2972명)와 비교하면 3882명 감소했다.

모집시기별로 가군은 서울대 등 138개교, 나군은 고려대, 연세대 등 138개교, 다군은 중앙대 등 121개교다. 대학에 따라 군별 단독 모집대학이 있고, 군별로 분할 모집하는 대학도 있다. 군별 1곳 씩 총 3번 지원 기회가 있으므로 자신의 성적별 지원 대학을 정해야 한다.

대다수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00%로 신입생을 뽑는다. 하지만 건국대·동국대·한양대나 군 등 일부 대학은 수능 성적에 학생부 성적 10%를 반영하므로 학생부 성적이 유리하다면 이들 대학 지원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나 전형 방식이 다소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자. 서울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학 비중이 높다. 인문계는 국어 33.3%,

<2020학년도 주요 대학 정시모집 현황>

대학	원서접수	모집군	모집인원	[인문, 자연] 전형방법
건국대	12.27(금)~12.31(화)	가/나/다	1,191	수능 90 + 학생부 10
경희대	12.27(금)~12.31(화)	가/나	1,459	수능 100
고려대	12.27(금)~12.31(화)	나	670	수능 100
국민대	12.28(토)~12.31(화)	가/나/다	1,169	수능 100
동국대	12.27(금)~12.31(화)	가/나	869	수능 90 + 학생부 10
서강대	12.27(금)~12.31(화)	가	566	수능 100
서울대	12.26(목)~12.29(일)	가	702	수능 100
서울시립대	12.27(금)~12.31(화)	가/나	635	수능 100
성균관대	12.27(금)~12.31(화)	가/나	1,128	수능 100
세종대	12.27(금)~12.31(화)	가/나	959	수능 100
숙명여대	12.27(금)~12.31(화)	가/나	728	수능 100
송실대	12.27(금)~12.31(화)	가/나/다	1,033	수능 100
연세대	12.27(금)~12.31(화)	나	1,136	수능 100
이화여대	12.27(금)~12.31(화)	가	963	수능 100
중앙대	12.27(금)~12.31(화)	가/나/다	1,439	수능 100
한국외대	12.27(금)~12.31(화)	가/나/다	1,430	수능 100
한양대	12.27(금)~12.31(화)	가/나	1,034	가군: 수능 100, 나군: 수능 90+학생부 10
홍익대	12.26(목)~12.31(화)	가/나/다	1,522	수능 100

/종로학원하늘교육

수학(나/가) 40.0%, 탐구(사탐/과탐) 26.7%를 적용하고, 자연계는 국어 33.3%, 수학가 40.0%, 과탐 26.7%다.

서강대는 가군 전체 모집단위에서 전년도에 이어 문이과 교차 지원이 허용되고 지난해 적용했던 학생부 비교과 10%를 빼고 수능 100%로 전형한다. 또

문이과 전체 모집단위에서 수학가형 가산점이 10% 부여된다.

한양대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군은 수능 100%로, 나군은 수능 90%와 학생부 10%로 선발한다. 다만 상경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국어 30%, 수학나형 40%, 영어 10%, 사

탐(2과목) 20%로 사탐 비율을 낮춘 대신 수학나형 비율을 높였다.

수능 성적 활용 지표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 등이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로 반영하고,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반면 국민대·숙명여대 등은 국어, 수학, 탐구 모두 백분위 성적을 활용한다.

올해 대입 정시에서는 특히 절대평가로 전환된 후 3년차를 맞은 수능 영어 영역이 이전 입시 결과를 참고할 수 없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등은 영어 영향력이 작은 반면 연세대, 중앙대 등은 상대적으로 영어 영향력이 큰 편이다. 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 등의 영어 변별력은 중간 정도 수준이다.

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다면 대학 선택의 고민이 없겠지만 영어 2등급이나 특히 3등급을 받을 경우, 국어·수학·탐구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영어 영향력이 큰 대학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올해도 전년도에 이어 국수탐

기준으로 영어는 등급에 따른 가감점 정도로 합격선을 예측해 지원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최상위권 수능 고득점자 중 인문계열에서는 수능 영역별 가중치, 제2외국어 영역의 고득점 여부에 따른 사탐 1과목 대체 등이 중요하다. 자연계의 경우는 서울대(서로 다른 과목 I, II), 연세대(서로 다른 과목), 고려대(과탐 선택 제한 없음)가 과탐 지원 가능 조합이 다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나 성적 활용 지표, 전형 방식 등이 다소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방식을 비교해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을 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은 평가이사는 “수험생 수준대별로 상위권 학생들은 모집인원의 특성상 가군, 나군에 실질적으로 소신지원하고, 적정 대학을 적절하게 배합해 지원하면 좋고, 중위권 이하 수험생들은 모집군별로 가나다군에 걸쳐 소신, 적정, 안정 지원을 적절하게 배합해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